

인권	
WS	분류기호
A 3-6	37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엡2:14)

바닥교회도시공동체 『꽃들에게 희망을』 통권10호

34

##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소식 제4호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A-5	

1994년 11월 10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3동 148-40 정환빌딩5층 ☎ 02)859-0430

### [똥물 싸움의 책임]

금년 6월에 한국에 취업연수생 비자로 입국한 여섯명의 네팔노동자가 부천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일을 마치고 이들은 잠시 몸을 씻기 위해 기숙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을 다 씻은 후 이들이 방으로 되돌아 왔을때, 방바닥에는 흥건히 똥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이들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주위에 있던 한국사람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같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가 진상의 주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여섯명의 네팔인들은 옆방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그 한국인 노동자에게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들의 방에다 똥물을 채워 놓았는지 항의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한국인노동자는 대담대신 쇠파이프를 들고 여섯명 모두를 심하게 구타를 하며, 이 공장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마디 사과도, 아무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쇠파이프에 심하게 맞았던 사람은 몇 주일을 끙끙 앓으며 기숙사 방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도 없었습니다. 취업연수생이라고 공장 밖 으르도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값싼 임금과 장시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도 기업주를 위해 일해 주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임금도 안오르고, 자신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을 쫓아 내려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지금 까지도 생각만 할 뿐입니다.

이같은 한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 구타사건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때 경기도 광주에서 스티어링 노동자 '자야세나'씨가 쇠파이프에 맞아 얼굴이 함몰되어 사망한 사건이나, 드라이버에 등이 깊숙이 패여서 찾아오는 방글라데시인, 손등을 칼에 찔린 후 또 태워버리겠다고 라이터불로 지져서 바지가 그을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자 돌맹이로 때려서 팔꿈치가 상해서 온 필리핀인 등,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사례들 (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응답자994명중 73.1%가 한국인에게 구타당했다고 답변함) 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 저희들은 상담을 받으며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이야기 하게 되면서 희미하지만 그 이유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 영세공장의 한국인노동자는 대부분이 국민학교,중학교를 졸업하고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수십년에 이르도록 첫가투가 날리는 허름한 공장에서 육설을 들고, 몽키,스페니에 맞아가며 어렵게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이제 겨우 80-9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썬임금이라는 경쟁력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받지 못한 교육때문에 사회로 부터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소외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비록 피부색은 다른 이방인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을 했거나 심지어 전직 '판사'를 했다는 사람들이 자기밀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밀에 새롭게 탄생한 이들에게 야릇한 이증적인 느낌(불쌍하면서도 학대하고 싶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땅에서 가장 열심히 몸을 드려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권력있고, 가진사람들 밑에서 버림받은 채 서로를 학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큰 죄값을 받아야 하는가? 그들은 바로 이들을 과도한 노동속에 몰아넣고, 손에 기름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이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누리며 지식,권력,명예,부를 휘젓는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화 있을진저! 세월보다 빠른 타이폰 회개가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박국 2:9-11」”

[목차]

1.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2. '귀향모임' 활동보고 - 조직 - 94년 [피난처. 귀향모임] 활동일지 - 재정보고 - 제1차 국외활동보고 - 청원서 - 우리의 입장(성명서) 3. 험터 - 헨리 소로우 수필 '시민의 반항' 연재 4. 피난처 소식 - 국가별보상현황 - 외국인보호소에서 온 네팔노동자의 편지 - 피난처 활동보고 및 95계획

## 1.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보고회"를 94년 10월 27일 10개 시민단체와 함께 갖었습니다. 보고회에서 저희 피난처는 그동안 접수된 취업연수생 인권실태를 사례중심으로 발제보고 하였습니다. 취업연수 외국인인은 최근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핵심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을 기대합니다. 이 보고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실습니다.

- 성명서) 노예노동자로 전락한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노동실태를 접하며, 커다란 부끄러움과 함께 이와 같은 사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만들어 온 문민정부의 도덕성에 큰 우려를 표시합니다.

정부의 외국인 취업연수생 도입 정책에 의해 2만여명의 10개국 외국인노동자가 금년 6월 부터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수입인력 입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노예같은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19세기 노예상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1994년 10월 27일 현재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 1) 본국에서의 계약과 다른조건

"본국에서 한국에 가면, 월급40만원, 의료서비스와 생필품, 숙식 무료제공, 기술습득 가능 이라는 광고를 보고 수 천불의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월급은 물론 모든 약속은 인력회사 대표의 연설 한마디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김포공항에서 모두 울었습니다(94.6.9일 네팔인 최초 입국자). 거기에도 또 매월 11불씩은 우리들을 송출해온 인력회사가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월급에 떼어갑니다. 따라서 실제 한달임금은 15만 9천 2백원 입니다".

### 2) 감금. 감시 상태의 한국 공장생활

"인력회사는 우리들의 쥐꼬리 만한 월급에서 떼어간 돈으로 무선 안테나가 달린 차량과 무전기를 구입하여 밤낮없이, 일하는 공장에서 우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시를 합니다. 고국에 편지를 쓰면, 회사에서 붙여주겠다며 달라고 하더니, 편지들은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됩니다. 전화도 쓸 수 없도록 금지를 하고, 여권도 압류한 채 회사 정문쪽으로 가지 못하게 감시가 철저히 합니다. 고국을 떠난지 오래지만 아직도 고향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리지 못했습니다. 일요일에 작업을 거부했다가 먹살이 붙잡힌 채 기계앞으로 끌려나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온몸은 짓밟혔습니다. 당시 맞지 않고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17명의 다른 네팔인 친구들은 겁먹은 눈으로 무서워 떨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속인 임금 조차도 일부는 본국으로 보내고, 일부는 출국때 까지 보증금으로(도망을 막기위해) 압류한다며 인력회사가 회사로 부터 직접 받아가서, 손에 쥘 수 있는 정식 임금은 매월 한푼도 없습니다. 한국에 오기 위해 인력회사에 지불하려고 빚내었던 23천불의 돈조차 갚을 길이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이런 모순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손에 수갑을 찬 채 인력회사 사무실(94.8.20일 서울 양천구 소재 동양인력개발)로 끌려가서 집단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 3) 언론. 정부. 사업주. 인력회사. 현지정부가 펼치는 공동작전

이같은 처지에서 용감한 사람들은 지정된 회사에서 탈출을 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2시간도 지나기 전에 경찰은 온 도시 주변을 포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합동으로 수배전단을 뿌리며 뒤를 쫓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들을 도망자로 보도를 합니다. 이들을 송출하는 본국정부는 송출 전 군사유격훈련을 시키며, 뺨을 때리며 모욕을 건디는 훈련 까지 시키고 있습니다(KBS1TV10월 19,20일 '세계는 지금'프로). 이 프로에서 나레이터는 이들이 이런 훈련을 받고 온 까닭에 한국에서 단 한명도 나오되어 되돌아 가거나 도망자가 없었다고 하며, 그 나라의 장래가 밝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가능케 하는 기반에는 한국정부의 강력한 경고 발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외국인 취업연수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탈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과 일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인력송출업체는 송출권을 박탈하며, 해당 송출국가에도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매일경제 94.10.10일).

4)이들을 노예로 바라보는 또다른 외국인노동자들의 눈길

그런데 근래에 이들을 돕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들보다 먼저 한국에 입국해서 노동하고 있었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입니다. 값싼 연수생 노동력을 늘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정부의 정책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찰의 체포가 부쩍 늘어나, 정작 자신들은 더 위협속에 놓이게 되었지만, 새로 들어온 취업연수생들의 처지가 자신들 보다 훨씬 비참한 것을 동정하며, 이들의 상황을 알리고, 도망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이들이 자국어로 발간한 회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만화가 실렸습니다. [최고랑을 찬 외국인 연수생을 인력회사 직원이 줄을 매달아서 끌고 가고, 그 뒤에 사장과 정부와 경찰이 서 있는 내용] 이었습니다.

5)사람파는 장사해 수익올리는 정부지정 인력관리업체

이런 마당에 정부로 부터 취업연수생 도입을 위탁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이들 2만명 도입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겨서 5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채용한 회사가 예치한 100여억원의 돈으로 이자 수입 까지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상황은 실제 노동은 시키면서도 노동자 자격은 주지 않은 채, 싼 임금의 노동력만을 이용하려는 지나친 경제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상황을 접하면서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달에 15만 9천 2백원 짜리 노동자가 우리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는 도덕적 불구자입니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돈만 아는, 바로 이런 정신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는 생각 합니다. 우리들은 외국인 취업연수생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토록 확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것이 이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인으로 조장되어 왔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마땅히 다음과 같이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노동인권 실태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부는 무자격 노동자를 양산하는 현행 취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인력수입이 필요하다면 한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외국인노동자가 노동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정부는 중간브로커의 착취와 사기행각을 부추기는 편법적인 취업연수생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사실상의 인신매매 행각을 벌여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산하 인력업체 대표를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 정부는 그동안 인력업체가 사기성으로 외국인 취업연수생과 맺은 고용계약을 파기하고, 임금을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금당사자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정부는 지나친 저임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외국인 취업연수생을 감금.감시하고, 여권을 압류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중단 되도록 이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송출하는 현지정부가 자국 노동자를 한국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경제적 착취를 행할 경우 그 나라로 부터 인력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한 인간이 일한 노동의 가치는, 어디에서나 소중하고 동일한 가치임을 인식시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철폐운동에 함께합시다.

- 청와대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정부기관에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는 항의 서신.전화 등을 합시다.

1994년 10월 27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중국노동자 센터. 산재노동자 협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산돌노동문화원. 경실련 불교시민연합. 감신대 노동과 예수. 서울신대 세라페모.

\* 추가속보(11월 14일 현재) : 저희 '피난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동양인력개발]을 10월 26일 [양천경찰서]에 고발 하였습니다. 동양인력개발은 피난처가 고발하기 전에 있었던 또다른 고발사건과 관련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외국인연수생들을 체포할 권한을 [법무부출입관리소]와 [안기부]로 부터 부여받았고, 이들로 부터도 구체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경찰조서에 진술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이 고발건과 관련하여 동양인력개발은 최고랑을 채우고 구태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였던 ○○○ 방송국 PD의 말에 따르면, 사건담당 경찰관은 "2만명이나 되는 인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들어와서 관리하는데 이정도 사건 가지고, 인력관리업계를 구속하면 되겠느냐"고 했고, 동양인력개발은 "솔직히 말해 좀 때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나쁜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망못가게 할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2. 귀향모임 활동보고

- 귀향모임 조직(귀향모임을 섬기고 계신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 문 - 이재정(성공회신학대학교 학장), 손봉호(서울대학교 교수), 이만열(숙명여대 교수), 오재식(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이영순(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김진홍(두레마을.목사), 조만(서울신학대학 교수)
- 자문위원 - 안상운(변호사), 김한주(변호사), 이석태(변호사), 김말룡(국회의원), 이부영(국회의원), 홍사덕(국회의원), 임채정(국회의원), 원혜영(국회의원), 신계륜(국회의원), 노병직(노동인권희관.소장), 조준호(전해투 위원장), 이용선(산재노협 회장), 정무성(교수), 정병태(출판사 대표)
- 공동대표 - 박승룡(복음과 상황 편집부장), 박무영(구리노동자상담소 소장), 이상경(변호사)
- 사무국 -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 협력단체 - 부산기윤실, 중국노동자센터, 노동인권희관, 산업재해 노동자 협의회, 전국의고노동자복지투쟁위원회, 푸른영상, 극단한강,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모임, 낙산교회, 시민종합법률사무소, 과기원교회, 녹동교회, 복원교회

### - 94년 [피난처.귀향모임] 활동일지

- 1994.4. 산업재해 당한 후 보상없이 추방당한 외국인노동자 보상금 찾아주기 활동시작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발족 이하 '귀향모임'
- 5월 귀향한 산재자 보상촉구 청원서작성, 귀향모임 회원모집 전단작성  
피난처 2호(통권8호) 회지 발간
- 6월1일 [한겨레 21]에 "국의산재자 취재협조 요청서" 발송  
5일 제1차국의활동차 서남아지역으로 출발(태국.네팔, 방글라데시.인도.스리랑카)  
6월 시민모임 회원 및 지지단체 모집활동 시작  
15일 청원서 정부에 발송(상공.법무.노동.총리실.외무.대통령비서실.국회의장)  
20일 상공자원부 청원서에 관해 회신  
21일 국회.총리실국제화추진위원회.법무부 회신  
24일 노동부 회신.
- 5일-8월 귀향모임 회원모집전단 배포  
7월6일 대통령비서실 회신(노동부로 이첩되어서)  
19일 1차 국외 활동팀 귀국(활동한 각 국가에 산재자 모임 결성.연락소개설.현지 한인들과 대사관에 내용홍보. 30여 사례를 수집해옴)  
20일 3회(통권9호) 회지발간  
21일 [한겨레 21] 취재팀 국외산재자 생활 취재차 네팔로 출국
- 8월4일 취재팀 귀국  
25일 [한겨레 21]에 총 16페이지 분량으로 국외산재자 실상보도  
28일 보도후 노동부에서 면담요청(과천제2청사 노동부 근로기준국에서 협의)

협의내용(우리의 요구사항)

- 1.정부가 국외에 공식적인 홍보를 통해서 신고접수 받을 것
- 2.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에 가능한한 국내에서 파악하여 조치토록 할것
- 3.재입국이 필요한 자에 대해 재입국 가능토록 주선할 것
- 4.외국인노동자 출국시 법무부출입국관리소가 산재자의 경우 보상관계를 확인한 후 출국시키도록 조치할 것
- 5.실제 사업장 규모가 외국인노동자포함 5인 이상 임에도 산재 가입이 안 된 사업장에 대해서 강제적용 의지를 가지고 시행할 것
- 6.보상금은 각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송금토록 할것

(노동부 답변)

- 1.귀향모임을 통해서 접수된 사례는 노동부 근로기준과 에서 일괄 처리 트 록 하겠음
- 2.접수된 산재 사례에 대해서 재입국 필요가 없이 산재경위가 확인만 되면 각국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키로 외무부와 협의 마쳤음
- 3.접수자의 사진채증과 치료받은 병원의 엑스레이로 판정이 가능하고, 판정 이 애매한 경우는 등급을 낮게 조정해서 산재자에게 유리토록 조치하겠음
- 4.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강제적용을 확실히 하겠다
- 5.재입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가 협조하도록 조치
- 6.이 모든협의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공식 서면답변서를 보내겠다.

29일-9월 9일 '귀향모임'고문방문(자문과 협조요청)

12일 노동부 장관실에 23명(방글라데시6,네팔23명)의 국외산재자 보상금 지급 요청을 위한 첫사례 제출과 기자회견

22일 귀향산재자 관련노동부 장관 2차 회신(불법체류 외국인 보호 종합대책)

(보호종합대책 내용.총9페이지)

1. 14개국 한국현지 대사관에서 현지정부.언론의 협조받아 산재당하고 보상없 이 출국한 이들에 대한 접수를 9월~12월 까지 받겠음(단 5인이상 규모 사 업장만 가능함을 강조함)
2. 국내 45개 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노동자 민원신고 센터를 설치 하겠음
3. 공항 등 출국장소에서 홍보물을 배포하여 귀국전 또는 귀국후라도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4. 5인이하 사업장도 앞으로는 산재적용이 가능토록 법개정 검토

10월3일 아시아 태평양지역 노동자 연대회의(일본) 초청 참가

5일 '귀향모임' 고문. 공동대표. 사무국모임 (참석:고문2, 공동대표2, 사무국3명)

8일 외국인 보호 종합대책 평가점검(노동부관계자와 직접통화 및 현장방문)

점검결과 : 대부분이 국내선전용 말장난이었음이 드러남

1. 45개 지방관서 민원신고센터 외국인 전용 전화번호 미개설. 기존 한국인 민 원센터에 간판만 추가로 달기로 함. 외국인 내방시 통역불능. 민간단체와 전화로 통역시도 할 예정.
2. 국외에서 9월에서 12월 까지 접수키로 발표 그러나 10월 8일에야 노동부 에서 외무부로 해외발표 공문발송
3.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자에게 홍보물 배포기로 했으나 직접 김포공항 방 문 확인 결과 직원이 홍보물 제시하지 못함
4. 9페이지 분량의 종합대책 발표했으나, 책정예산이 전혀 없음이 밝혀짐

5. "너무 많이 보상해주면 재정문제가 발생하니까? 좀 문제되지 않도록 해달라"(노동부 담당관의 말) - 그러나 작년 정부 산재보험 재정은 흑자였음을 상기하기 바람)

6. 국외에서 정부의 접수 발표. 홍보에 대해서는 각국산재자 모임에서 감시 활동 시작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21] 10월 20일자.30호에 실려 있음)

8월-10월 외국인 취업연수생 실태접수 및 조사

27일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보고회] 주최

11월12-13일 전국노동자 대회참가 [외국인노동자 한국인노동조합과의 최초 연대시도]

(94년도 연말 95년 초반기 활동 일정)

11월 주한 각국대사관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및 각국대사 면담

2차 국외활동 재정마련 활동

26일 [외국인취업연수생 인권실태 개선 촉구 캠페인] 10여개 단체 공동주최

15일 피난처 4호(통권10호) 회지 발간.

12월 중국,필리핀(1개월반체류예정),서남아 지역(3-4개월체류예정)에 귀향 산재자 찾기 위한 2차 국외활동(활동가 4명파견 계획). 서울신학대학 사회사업학과 실습생 국외활동지 파견.

95년1월 '귀향모임'회원 3세계 찾기 배낭여행(각국의 산재자 가정방문과 국외활동 자원봉사)실시. 대학생 자원봉사자 국외활동지 파견. TV방송 국외산재자 현지 취재실현.

2월말 제2차 국외활동 마감. 정부보상 누락자에 대한 대책수립. 재입국자 선별 및 재입국 추진.

3월중순 '귀향모임' 회원 전체모임. 전체활동보고. 평가 및 전망과 계획.

4월 국외활동 보고서 발간

## - 귀향모임 재정보고('94 5월 ~ 8월)

월별수입내역(5월 ~ 8월)

5월 총액 : 90,000원

개인5명(90,000원) - 김도형,이순희,최영교,성인심,신선교

6월 총액 : 891,000원

개인23명(435,000원) - 김재환,함경숙,이정은,오송희,이상경,이영녕,홍석창,김기성,황인수  
박상운,무명교수,조정현,조정선,김성원,김정렬,이명호,박갑식,유용화  
박혜숙,이재형,김거성,김말룡

단체 3곳(456,000원) - 과학원교회,서울영동교회,시민종합법률사무소

7월 총액 : 870,000원

개인14명(320,000원) - 김난주,김주희,윤환철,이수호,강은성,Dyddmsal,남현정,이정은,강원경  
양기진,김기성,김민자,연규자,김동순

단체 3곳(550,000원) - 탄포리교회,서울영동교회,시민종합법률사무소

8월 총액 : 405,000원
개인13명(255,000원) - 김난주,이인교,박경호,이윤구,남궁경혜,박석환,최진우,정택진,이윤관 이종식,현준명,김기성,오형주, 옥수등
단체 2곳(150,000원) - 서울영동교회,시민종합법률사무소
총수입액수(5-8월) : 2,256,000원

월별지출내역(94.5-8월)  
(\*국의활동비는 월별지출내역과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5월 지출없음
6월 30,000원 지출내역 - 청원서 접수 활동 및 자료복사비
7월 60,000원 지출내역 - 실무자활동비,교통비,자료복사비(3만원),타단체후원비(3만원)
8월 7500원 지출내역 - 실무자교통비(5500원), 자료복사비(2000원)
지출총액(5월-8월) : 97,500원

1차 국회활동 재정보고('94.6.5 ~ 7.19일)  
활동국가: 태국,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지출내역	총액
<b>교통비</b> 1. 항공권료: 994,000원 서울-방콕-카트만두(왕복) 720,000원 켈컷타-다카(왕복) 50,000원 마드라스-콜롬보(왕복) 82,000원 마드라스-켈컷타(편도) 83,600원 켈컷타-카트만두(편도) 58,400원 2. 기타교통비(버스, 택시, 기차, 배 등...) : 20,770원 인도 10,000원 태국 2,720원 스리랑카 8,050원 방글라데시, 네팔은 현지 산재자들이 부담 3. 공항세: 61,653원 방콕 6600 * 2회 = 13,200원   마드라스 3,928원 켈컷타 7,857 * 2회 = 15,714원   다카 6,496원 카트만두 14,000원                콜롬보 8,315원	계 1,076,423원
<b>국외사무실 운영지원비</b> 스리랑카 250\$. 방글라데시 201\$ 네팔 350\$	계 801\$ (650,412원)
<b>통신비</b> 1. 국제전화: 방글라데시-서울(3회) 인도-서울(1회) 스리랑카-서울(1회) 인도-스리랑카(1회) 네팔-서울(2회)	계 92,663원

2. 펙 스: 방글라데시-스리랑카(3회)인도-스리랑카(1회) 네팔-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각1회) 방글라데시-서울(1회)	
비자발급비 네팔(2회) 55\$(44,660원) 인도 19,000원	계 63,660원
숙식비	계 223,832원
기타잡비(단체방문비, 약품, 우편발송비, 산재자가정방문비 등...)	계 98,000원
<b>총 계</b>	<b>2,204,990원</b>

\*총수입(5-8월) 2,256,000 - 총지출(5-8월) 2,302,490원 = 잔액 -46,490원

♡재정에 잡히지 않는 부분 외에도 「달리만들」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정병태 선생님께서 회지와 귀향모임 안내전단의 인쇄를 해주셨고, 이번 여름방학 기간동안 3개월분의 자원봉사자 급료 90만원을 보조해 주셨습니다.

## - 제 1차 국외활동 보고

귀향모임의 국외팀은 지난 6월 15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태국-네팔-인도-방글라데시-인도-스리랑카-인도-네팔-태국을 경유하여 7월 19일 김포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일행은 김재오전도사와 두명의 예비 외국인노동자 활동가 이은섭(대전),손현진(대구)씨 등 3명이었습니다. 경제문제 때문에 일정기간 내내 싸구려 로지(호텔)-(실은 허름한 창고로 상상하시면 됨)-을 전전한 덕분에 서남아 토종 벼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각 국가별 활동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태국

「아시아지역 타이여성노동자의 친구들」, 「태국여성재단」, 「노동자를 위한 정보와 조사 센터」 등 3개의 사회운동단체와 만남을 갖고 한국에서 산재당하거나 사망한 태국노동자를 모집하는 등의 일을 돕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의 소개로 태국수상을 보좌하여 태국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태국국립출라롱콘 대학의 교수 한분이 이번 프로그램을 돕겠다고 자청하셨습니다. 한국내에서 노동하는 태국노동자들의 경우 아직 까지도 자체모임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귀향한 산재자 모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지 단체들로 부터 홍보 및 언론이용, 모집장소 제공 등의 도움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들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이번 방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의 경우 신문에 이미 모집홍보를 1차로 게재하였습니다. 태국방문기간 동안 「타이 여성노동자의 친구들」이라는 단체에서 계속해서 숙박을 하였고 모든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접촉하게 된 단체들은 주로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태국은 전세계의 남자들이 매춘관광을 하러 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태국에는 매춘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체들은 에이즈 문제나 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한 대책과 사회계몽활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방문했을때 “성을 돈주고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라는 태국어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남자들도 매춘관광을 많이 온다는 말을 듣고는,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만 할말이 .... ??



## 2. 네팔

태국의 돈무앙 국제공항을 이륙한 로열네팔 항공기를 타고 2시간, 타는 듯한 불볕더위를 받은 탓일까? 북인도 평원의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기 밑으로는 온 대지가 시뻘건 모습으로 열기를 뽐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후 비행기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면서 히말리야 산맥의 하얀 만년설들이 눈에 다가들며, 갑자기 땅이 하늘로 불쑥 솟아난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만큼 산들이 비행기의 배에 꼭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2시간 30분의 비행끝에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 입국수속을 마치고 공항밖을 나서자 잘려진 팔목과 손가락들을 한 낫익은 얼굴들이 모여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들에서 따온 꽃다발들을 목에 걸어주며 성대한 환영을 하였습니다. 난생 처음 꽃다발을 목에 거는 축스러움과 꽃다발을 받을 만큼 잘한 일도 없는, 아니 오히려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도 할말이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로써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고개를 들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택시 몇대를 잡아서 타고 카트만두 시내에 임시 사무실로 잡아놓은 허름한 호텔방으로 갔습니다. 택시비를 지불할 때도 돈을 셀수가 없어서 한손으로 애를 먹던 모습, 한팔만 달린사람들, 여름인데도 긴팔옷을 입은 이상스런 한때의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마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올해 1월10일에서 2월7일 까지 한달동안 3개국의 외국인산재노동자들이 한국정부에 양심을 호소하는 농성을 했고, 그 결과 외국인노동자들도 산재보상을 받게된 경위를 설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팔에서의 산재자 모임을 어떻게 만들것인가를 토의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토의 결과 산재자 모임대표를 세우고, 사무실을 결정하고, 실무자에게는 산재자 접수양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카트만두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대사와 면담하였는데, 처음에는 한국에서 산재당하고 온 사람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에대해 준비해간 사진을 보이면서 증거를 들이대자 할 수 없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자칫하면 북한대사관에 알려져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제발 자중해 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대사님도 이 일에 대해서 본국에 연락하여 협조하기로 약속을 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네팔의 두번째 큰 도시인 '포카라'를 거쳐 히말라야의 8000미터급 봉우리가 있는 '안나푸르나'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시 '카트만두'로 돌아온 후, 비포장도로 위를 20시간 동안 버스로 달려 네팔 서부 주도인 '다란'을 방문하였습니다. '다란'에서는 한국에서 왼쪽 어깨를 잘려서 귀향한 수렌드라씨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 방문했을때 우리는 기억할만한 두가지 사건을 겪었습니다. 첫째는, 수렌드라의 친구집에 함께 방문하러갔었을때 한 네팔인 청년이 찾아와서 우리를 해썬이 하려고 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당했다는 대로, 그는 한국말로 쌍말(나쁜말)을 우리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수렌드라가 이것을 듣고 주먹으로 때리겠다고 그를 제지한 덕분에 우리는 더이상 불미스러운 일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수렌드라는 몇년전에 서남아지역 키크복싱 챔피언으로 그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왜 그 사람이 우리를 해 할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그는 한국에서 일할당시 5개월동안의 임금을 못받고 회사에서 쫓겨난데다가, 공장에서 한국사람에게 많이 맞기도 했고, 나쁜 욕 「야! 캐세키 야」 등을 많이 들었다고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때릴려고 찾아왔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다란' 버스 정류장 앞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국인교포를 만난 사건입니다. 이 ◦ 옥씨라고 하는 35살 가량의 이 한국여성은 지난 92년 11월 한국에 노동하러 왔었던 지금의 네팔인 남편과 만나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고향인 '다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남편은 이지역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수렌드라 친구들이 한국여자 한 사람이 이 근처에 시집와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찾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무척반기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가까운 친구처럼 쉽게 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곳에서 네팔인에게 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경험담을 들려 주었습니다. “레스트랑을 처음 차렸을때, 어떤 사람들이 자주 식탁보에다 서투른 한국글씨로 ‘한국사람 개새끼’ 라고 써놓고 가고, 어떤 경우에는 담배불로 식탁보를 지져버리고 가고, 때로는 한국에서 손목이 잘려온 사람이 와서 울고 가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다란’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네팔의 서부국경을 육로로 넘어서 동북인도의 주도인 ‘실리구리’로 인도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끝나던 7월 14일경 다시 네팔에 입국하여 4일간을 네팔에 더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에 네팔의 신문,라디오,텔레비전에 산재자 모집홍보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산재자들과 함께 토의 한후 결정 하였고, 한국의 언론사에서 취재울 것에 대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4일동안 그동안 파악된 사례들을 직접 접수를 받고, 실무자를 재훈련 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까지 네팔에서 접수받은 사례는 총 25건 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말 부터 8월초 까지 ‘한겨레 21’의 취재팀이 네팔과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이들의 삶을 취재하여 8월 25일자로 보도 하였습니다. 네팔 사무실은 카트만두 순다라 지역에 있는 ‘판차시 호텔’ 입니다.

### 3.인도

인도는 인구나 대륙의 크기에 비하면 한국에 입국하여 노동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국가에서는 제외 되었습니다. 물론 ‘마드라스’ 지역에서 한국에 입국했던 노동자가 몇 사람 죽고, 다쳤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남아 지역 방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경유해야 할 나라였습니다. 특히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육로를 이용하여 각국을 이동할때, 인도는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네팔로 이동할때 매번 인도를 경유하여 이동을 하였습니다.

네팔일정을 마치고 동북인도를 거쳐 방글라데시 북부 국경으로 입국하려는 것이 최초의 저희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네팔산재자 모임과 방글라데시 산재자 모임을 연결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네팔인의 방글라데시 북부 국경 입국이 안되어서 할 수 없이 ‘켈컷타’로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동북 인도의 국경도시인 ‘실리구리’에서 ‘켈컷타’까지 야간열차로 14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후 네팔인 형제의 방글라데시 입국비자를 얻기 위해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갔습니다. 그러나 비자발급이 한달 걸린다는 통보를 받고, 네팔인 형제는 결국 다시 네팔로 되돌아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내고 급히 서둘러 다시 ‘켈컷타’에서 방글라데시로 육로 입국을 위해 ‘베나폴’(켈컷타에서 2시간 거리-92년8월에 우리는 이곳을 한번 넘은 경험이 있었음)이라는 국경도시로 갔습니다. 그러나 인도국경을 넘어서 방글라데시쪽으로 넘어갔을때 입국을 거절당하였습니다.(거절이유는 - 방글라데시 주재 한국 선교사들이 공공연하게 현지인에게 전도하다 발각되어 방글라데시 정부로 부터 한국대사가 강력히 항의받았던 시기였다고 함). 할수 없이 ‘켈컷타’의 ‘시알다’기차역으로 되돌아 와야 했습니다. 찌는듯한 폭염에 아침에 출발한 지점으로 되돌아 오자니 힘이 쭉 빠지고, 피곤해서 기차역 식당에 들어가 점심겸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피곤을 식히느라 계속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우리들의 맥빠진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다가와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인디펜던트’신문사의 기자였는데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번 프로그램을 신문에 실어서 홍보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신문은 영어,힌두,우루두어 판으로 발행되는 신문인데 접수연락처는 네팔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쨌든 빨리 움직이려고 했던 우리들의 일정이 차질이 생긴 대신에 뜻밖에 인도의 산재자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룻밤을 켈컷타의 1300원 짜리 호텔에서 잠을 청하려고 했더니, 예외없이 침대 베틀이(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벌레인데, 빛이 있으면 숨고, 어둠에서만 활동한

다고 함)은 몸을 물어 뜯는데, 목과 팔 다리가 예리한 침으로 깊이 절름을 당하는 듯한 통증과 함께 뚱뚱 부어 올랐습니다. 거의 뜯은 눈으로 날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방글라데시 수도로 '다카'로 갔습니다. 이후 다시 국가간 이동을 하느라 인도를 2번더 입국해야 했는데 상황은 언제나 똑 같았습니다. 인력거와 비행기가 공존하는 신비한 나라, 선도 악도, 기쁨도 슬픔도, 좋음도 나쁨도, 친구도 적도, 거짓말도 진실도, 현재도 꿈도, 이 모든 것들이 개념이 모호한채 몽둥그러진 '진짜 꿈'과 같은 몽롱한 나라, 바로 그 인도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 4. 방글라데시

다카 상공에서 내려다 본 방글라데시는 물의 나라답게 온 도시가 홍수에 잠긴것 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부터 출국하기 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산재자들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도착 후 '다카' 시내 중심가인 '파름게이트' 근방에 연락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온 산재자들을 인편으로 수소문하고, 신문에 모집홍보를 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를 떠날때 까지 일곱명의 산재자를 직접 면접하였고, 일곱개 신문에 모집홍보 광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겨레 21" 취재맞이 훈련, 실무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정 중 가장 중요한 일로 산재자들의 가정방문을 하고, 생활상태를 점검하였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생활형편과 산재후휴증으로 인해 폐인이 되다시피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고는 눈물을 감추느라 혼이 났습니다. 특히 '한겨레 21'에 소개되었던, '이스라엘 알리'씨의 경우 "내가 이러다가 곧 죽지" 하는 말을 취재했던 기자의 느낌이 사실처럼 강하게 다가와서 그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지금 이순간에도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 5.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일정을 서둘러 마치고, 다시 '켈컷타'의 하우라역에서 24시간의 기차여행 끝에 남인도의 주도인 '마드라스'에 저녁 석양을 받으며 도착하였습니다. 급히 이동하느라 이동열차를 좌석권도 없이 올라탔는데, 친절환 천주교신자 가정의 배려로 밤에도 3단 침대 맨위칸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마드라스'에 도착한 날 저녁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까지의 항공편이 내일로 예약되어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로 마드라스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대가 맞아들어서 밤10시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북부 '자프나'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타밀족' 게릴라들의 테러방지를 위해서, 탑승자에 대한 심사는 남녀를 불문하고 몸수색 까지 철저히 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의 비행을 마치고 밤 11시경 콜롬보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맞이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의 냉대(한국인)로 졸지에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항에서 뜯은 눈으로 하룻밤을 새우며 여러가지 갈등과 외로움들이 가슴속을 스쳐 갔습니다. 안내를 약속했던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졸지에 먼 이국땅에서 고아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여행을 왔다면,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었지만, 사람을 찾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난감함은 말로 표현할 수 가 없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고민하던 끝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리라는 용기를 얻고, 배낭 여행 하던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사람을 맞이하러 나온 스리랑카 현지인들을 유심히 살펴서 그중에서 마음씨 좋고 유식해보이는 할아버지 한분을 선택해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 하고, 나를 도울만한 단체를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도와 주겠다고 응했고, 밤에 다시 통화 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새벽5시경 공항버스를 타고 어두컴컴한 콜롬보 시내 중심가에 도착하여 쉼 곳을 찾느라 이곳 저곳 골목을 헤메던 중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담노하나 없이 길가에 놓여진 리어카 위에서 잠을 자던 한 가족을 보았는데, 마

침 아기가 심하게 울어대며, 보채는 소리가 새벽미명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 가서 보았더니 나이 50은 족히 넘어보이는 한쌍의 부부가 떠만 앙상히 남은 갓난아이 하나를 어르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근방을 헤메다 YMCA호텔에 들게 되었는데, 건물은 왕궁과 같았지만 시설과 위생상태가 흡사 돼지막과 같고, 담노하나 문짝하나도 없는 폐가 같은 집. 하룻밤을 지세운 몽롱한 정신, 일에대한 불안, 벼룩에 대한 두려움이 혼재하며 아! 괴로운 이 육체와 영혼....

이 후 4시간의 잠을 청한 후 도망치듯 호텔을 나와서, 만나기로 했던 한국인과 다시 연락하여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동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오해도 모두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연결된 스리랑카인에게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스리랑카 도착 후 3일째 서둘러 스리랑카를 떠났습니다.

## - 청 원 서

-제 목: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산재보상금 본국송금 및 재입국 허가를 위한 청원

-피청원인 : 노동부 장관(상공부,법무부,외무부,국무총리실국제화추진위원회,대통령)

-청 원 인 :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 I. 청원의 취지

- 정부는 금년 2월 7일 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산재를 당했을 경우 3년 소급 적용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산재를 당한 후 노동부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비록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전에 이미 출국한 5,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3년간의 외국인산재노동자들은 사실상의 입국이 규제되어 있어서 법적권리가 있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업주의 압력에 의해 산재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채 귀국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산재를 당하고도 출국시 출입국관리소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내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귀향한 이들에게도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상금의 송금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귀향한 외국인산재노동자 숫자에 대한 통계설명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을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지 않는 현재 정부의 정책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시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과 관계없이 고율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해주고도 월급을 받지 못한채 벌금까지 내고 귀국한 외국인들은 한국에 상당한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조사와 함께 송금조치가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만일 송금조치가 불가능 하다면 이들의 법적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이들이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입국이 허용되어야만 합니다.

- 산재의 경우 법적권리를 인정하고도 지금과 같이 절차를 막고 있는 현재의 상태는 기업주들의 책임모면의 구실이 되어 기업윤리를 악화시킬 수 있을 뿐 더러, 다른 국가들로 부터 우리나라가 비난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를 지향하는 현행의 국가목표를 저해하는 큰 원인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 이에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은 우리나라에서 산재를 당한 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5,0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산재자와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당한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정부가 이에 관하여 정확한 조사와 아울러 송금조치를 단행해 줄 것을 청원하오니 이를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II. 청원의 이유

1)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상적인 임금체불,산재를 겪고도 보상받지 못하고 이미 귀국했거나, 지금도 계속해서 귀국당하고 있는 사태는 단기적인 경제 이익만을 생각하는 짧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은 반드시 경제적인 것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한 후 폐품이 된 기계를 버리듯이 하는 행위는 국가의 윤리와 도덕을 황폐화 시키고 있습니다.

2)경제이익의 논리에만 치우쳐 노동력을 쓰고도 댓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윤리가 저하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윤리의 황폐화는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3)외국인노동자로 한국에 왔다가 억울한 경험을 한 이들에 의해 필리핀,중국조선족거주지역,방글라데시,네팔,파키스탄 등의 나라에서 한국인에 대한 악감정과 폭력이 발생되고 있다는 소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유지되거나 방지된다면 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의 국가적인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뿐 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4)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이민노동자의 이동이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20년 이내에 이민노동자문제가 아시아 지역문제의 중요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국제기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애 따른 지역내에서의 빈부격차의 심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때에 이 지역내의 부국과 빈국사이의 경제윤리의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 하는 국가가 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5)93년을 기점으로 아시아는 우리나라 수출고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는 계속 증가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기업의 국외활동과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정의를 수립하는 것 외에도 경제적 이익으로 귀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6)우리는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북예멘과 독일의 통일 경험이고훈 하듯이 두 체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를 경제논리로만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사람을 값싼 노동력, 즉 경제논리로만 보려는 한 사회의 욕심을 평가하는 잣대 입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윤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통일민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민족윤리를 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7)산재로 불구가 되어 귀향한 노동자나 사망자 가족들은,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본국에서 낸 빚을 갚지도 못하고, 산재로 인해 본국에서의 취업도 불가능 하여 이중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은 장해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거나, 가장이 사망한 여성의 경우, 여성의 노동을 창녀가 되는 것보다 천하게 여기는 문화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의 삶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마땅히 보호 되어야 합니다.

8)따라서 21세기에 세계속의 모범적인 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국제화,개방화가 올바른 도덕적,경제적,외교적,민족통일적,인도적 이해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 지기 위해서도 이미 귀향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산재보상금을 각 해당 국가로 송금하는 조치가 단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94. 5. 28.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93년도 내국인 전체 산업재해율은 1.3%이며, 그중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은 재해율이 3%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외국인노동자의 숫자를 10만으로 계산했을때 연간 외국인산재노동자 수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재해율 3%를 적용 산출하면 3,000명이 됩니다. 93년 11월 「천주교서울대교구」에서 필리핀인과 네팔인 9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결과 1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취업율이 95.5%,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율이 89.6%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할때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을 기준으로 외국인노동자 산재율을 계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산재보상을 발표하기 전 3년동안 우리나라에서 산재당한 외국인노동자는 총 9,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중 4,000여명이 현재 미 귀국했다고 감안하더라도 귀국한 이들의 숫자는 5,000여명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문화충격,경험미숙,장시간노동,언어소통불능 등)을 고려해 놓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설문조사에서 37.6%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작업중 질병과 상해를 당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 사실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전체숫자를 10만명으로 본것은 92년 6월10일 부터 7월까지 법무부출입국관리소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파악한 외국인노동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당시 자진신고한 외국인숫자는 61,112명 이었는데, 이때 당시 이동 중 이었거나, 뉴스를 접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친 사람 등을 40% 정도로 계산하여 추측한 숫자 입니다. 이 40%는 「외국인노동자피난처」에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언론에 보도된 통설을 근거로 낸 추정치 입니다.

###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금 지급요청을 위해 노동부에 제1차 사례를 접수시키면서 밝히는 우리의 입장

(9월 12일 오전 노동부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후 바로 노동부장관실에 “우리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와 함께 23명의 보상금 지급요청서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년 2월 7일 3개 국적외(방글라데시,네팔,이디오피아) 외국인 산재노동자들의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농성에 못이겨,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상금을 3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되는 산재율에 비해 납득할 수 없는 소수만이(94.2.7-6월말 까지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한 외국인 산재자 수는 65명에 불과)현재까지 요양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산재보상을 발표하기 이전 3년동안 산재를 당하고 이미 각 나라로 귀향당한 산재노동자들도 수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산재보상 방침을 결정한지 7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발표에 걸맞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아직까지도 외국인 산재노동자들은 산재요양을 위한 영문접수양식 조차도 없어서 한국로 된, 읽을 수 없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우리 정부의 이런 미온적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정책에 적절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임은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노동하다가 산재로 불구가 되고, 사망당해서 귀국한 사람들을 금년 5월부터 8개국에서 찾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남아지역 5개국(방글라데시,태국,네팔,스리랑카, 인도)에는 한국에서 산재당한 후 귀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산재자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경에는 동북아 지역 2개국(중국,필리핀)과 파키스탄에도 산재자 모임이 결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민간단체의 노력이 우리 정부의 외국인 산재노동자의 보상금 지급과 인

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정직한 노력이 없는 한 기업주들은 자기 공장에서 산재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을 응급처치를 한 후 국외로 추방해 버리는 지금과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산재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기업주가 보상금을 가로채 가는 상황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방치는 정부의 산재보상금 지급조치의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한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네팔에 여행간 한국인 교수 한분이 구타당한 일과, 한국인이 경영하던 식당을 불질러 버린 필리핀에서와 같은 사건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국에서 노동하다 산재를 당하여 불구가 되고 사망하여 돌아간 사람들로 부터 접수한 23건의 사례를 1차로 노동부에 접수시키고자 합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이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이를 계기로 산재당한 후 보상없이 추방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줄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제화,개방화를 국가시책으로 지향하는 시점에서 가난한 이웃나라 사람들에 대해 보다 책임있는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정부는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에서 산재당하고 귀향한 이들의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와 아울러 이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귀향산재자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우선해서 각국으로 보상금 송금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 보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입국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국이 가능토록 조치해야 합니다.

- 정부는 국내에 남아있는 외국인 산재노동자들이 보상없이 귀국조치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1. 노동부는 산하 전국 각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보상없이 귀국한 사람들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2.노동부는 산재보상금 지급시 반드시 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하고, 기업주가 가로채지 않도록 기업주와 산재자 당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노동부는 실제 사업장 규모가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임에도 산재가입을 안한 사업장에 대해서 강제적용 규정을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4.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의 협조아래 임금채불자와 산재자들이 출국할 때는 반드시 임금과 보상관계를 확인하고 출국토록 조치해야 합니다. 1994년 9월 12일

####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금,채불임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제출자 명단/네팔17,방글라데시6명 총 23명> #사망자 및 미제출자 명단 제외

- 1.라메쉬 키트리 (21세) 오른손 2,3,4,5수지 절단
- 2.우딤 바하두르 구롱 (30세) 오른손 어깨 첫마디 중간부위 밑으로 폐용
- 3.암릿 바하두루 구롱 (25세) 오른손 손목부위 절단
- 4.람 사란 라니아 (33세) 오른손 손목 절단
- 5.우담 정 구롱 (46세) 오른손 손목 절단
- 6.크리스나 아디카리 (43세) 오른쪽 4수지 절단
- 7.파담 코마르 스텔스타 (28세) 왼손2,3,4수지 절단 및 5수지 폐용
- 8.유겐트라 라마 (24세) 왼손 2,3,4,5수지 절단
- 9.수렌트라 꾸마리 라이 (23세) 왼손 팔목 절단
- 10.랄 고팔 구롱 (23세) 오른손 손목 절단
- 11.두르가 바하두르 타타 (28세) 오른손 손가락 모두 절단
- 12.람싱 타파 (30세)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절단

- |                 |                                    |
|-----------------|------------------------------------|
| 13.나라얀 곤바       | (22세) 왼손 수지 모두 절단                  |
| 14.옴 바하두르 구롱    | (26세) 오른손 엄지절단 및 부분폐용              |
| 15.정 텐진 구롱      | (39세) 오른손 2.3.4수지 절단               |
| 16.수리야 바하두르 구롱  | (39세) 오른손 팔목 절단                    |
| 17.인드라 짓 구롱     | (24세) 왼손2수지 절단 및 1.3.4.5수지 부분폐용    |
| 18.이스라엘 알리      | (27세) 왼손 팔목 절단                     |
| 19.하니프 모하마드     | (26세) 왼손 2.3.4.5.수지 절단             |
| 20.바들 후세인       | (31세) 왼손 2.3.4수지 절단                |
| 21.모하마드 쉬두르 라흐만 | (26세) 왼손2.3수지 완전폐용                 |
| 22.모하마드 이스라엘    | (28세) 왼손 손목 절단                     |
| 23.모하마드 알리      | (36세) 왼손2.3.4.수지 절단 및 손목아래 부분 완전폐용 |

### 3. 쉽 터 ! - '헨리 소로우' 수필 [시민의 반항]

[작가소개]-'헨리 소로우'는 1817년에 태어나 1862년에 죽은 미국의 사상가.문학가입니다. '소로우'는 인간의 존엄성의 원리를 자연에서 찾고, 자연처럼 살기 위해 비폭력주의를 주장했으며, 자연 속에서 자연처럼 조용하게 살기를 원하는 가장 완벽한 자연주의자였습니다. 이 에세이는 후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마르틴 루터 킹' 목사 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본래적인 것보다는 겉질(법,관습화된 윤리의식,문화의식 등등)에 얽혀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이것을 진실인양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생활의 매일의 이익을 지켜준다고 잠재의식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겉질을 깨뜨리려는 행동을 오히려 박해하고 살해하는, 오늘 우리사회의 모순과 우리들 스스로의 내면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수필을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 [ 권력이 일단 인민의 손에 들어왔을 때, 다수의 지배가 허용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유는 결국 그들이 가장 정당하다거나 또는 이것이 소수자에게 가장 공정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리적으로 가장 강하다는 데에 있다. 다수가 지배하는 정부라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정의----심지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내의 정의----에 바탕을 둘 수는 없다. 다수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 않고 양심이 결정하는 정부는 있을 수 없는가? ---- 다시 말하면 다수는 오직 편법적인 지배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만을 결정하는 정부는 있을 수 없는가? 시민은 잠시나마 또는 최소한으로나마 자신의 양심을 정부에 맡겨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시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을 계발하는 것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계발하는 것만큼 바람직하지는 않다. 내가 가정할 권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의무는 어떤 때에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단체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의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이다. 법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만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도 날로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법에 대한 부당한 존경심의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당신은 언덕과 골짜기를 넘어 싸움터로 놀라울 만큼 질서 정연하게 행진해 가는 대령, 대위, 하사관, 사병, 탄약운반병 등의 군대 행렬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의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들의 상식과 양심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행군이 무척 어렵고 심장조차 뒹다. 그들은 그들이 맡려든 일이 저주받은 일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인가? 그들은 도대체 인간인가, 또는 권력을 장악한 파렴치한 사람에게 이바지하는 움직이는 작은 요새나 탄창인가? 해군 기지를 찾아가서 해병을 보라.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인간성의 그림자이고 잔재이며, 산채로 옆에서 세워 놓은 말하자면 이미 장례 주악에 맞추어 무기 밑에 묻어 놓은 인간인 것이다. 다음 시와 같다고나 할까.

그의 시체를 성채로 급히 운반할 때  
북소리도 들리지 않고 부고도 없었다.  
우리의 영웅이 묻힌 무덤 위로는  
조포를 쏘는 병사도 없구나.

\*아일랜드의 찰스 울프의 시「주안무어의 장례식」에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주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기계로서 몸으로 나라에 봉사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상비군, 예비군, 간수, 경찰관, 민병대 등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그 판단이나 도덕감이 어떠한 이들 자유로이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나무나 흙이나 돌의 위치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사용할 목제인간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짚으로 만든 인간이나 흙덩어리 이상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들의 가치는 말이나 개의 가치와 같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보통은 훌륭한 시민으로 평가된다. 다른 사람들은(대부분 입법자, 정치가, 법률가, 장관, 그 밖의 관직자로서) 주로 머리로 나라에 봉사한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도덕적 분별을 하지 않으므로, 신에 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지중에' 악마에 봉사하기 쉽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영웅, 애국자, 순교자, 위대한 의미에서의 개혁가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들의 양심에 의해 나라에 이바지하고, 따라서 대체로 나라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라로부터 적 취급을 받는다. 현명한 사람은 인간으로서 유용하기를 바랄 뿐이고, '진흙'이 되어 '바람구멍막이'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며, 적어도 이러한 소임은 흙에 맡긴다

세계의 어떤 국가에 대해서나  
지배받는 이차적인 존재로서,  
또는 유용한 사용인이나 도구로서  
소유되기에는 나는 너무나 고결하게 태어났다.

\*셰익스피어의 「존왕」에서

## 4. 피난처 소식

### - 국가별 보상 현황

금년 1월부터 2월 7일까지 있었던 [산재외국인노동자 농성]을 계기로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월 7일 부터 8월 31일 까지 총 1,149,873,000 원이 보상금으로 지출되었 습니다. 국가별 보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94. 2. 7 - '94. 8. 31

국가별	보 상 인 원	보 상 금 액
계	128명	1,149,873천원
중 국	42	593,078
방글라데시	31	208,280
네팔	18	86,332
필리핀	13	77,428
파키스탄	5	43,996
이란	4	25,141
스리랑카	3	15,125
태국	3	25,445
나이지리아	3	13,820
가나	2	20,961
미얀마	1	4,241
베트남	1	14,838
이디오피아	1	11,523
인도	1	9,658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산재율에 의하면 적어도 500억원(산재자 일인당 500만원 \* 일만명)의 산재보상금이 지출되었어야 함에도 이처럼 적은 액수만이 지출된 것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1월 정부가 자체 예상한 80억원-100억원을 예상한 것에 조차도 터무니 없이 못 미치는 이 액수는, 노동부의 외국인 산재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왜곡되고, 은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동과 악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속죄하는 행동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 - 외국인보호소에서 온 네팔노동자의 편지

[이 편지글은 나젠드라 고훈 [주한 네팔 외국인노동자협회 대표] 이라는 네팔인 외국인 노동자가 94.10월 마지막 2주를 휘경동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에 체류하면서 보호소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에 보내온 편지글이다. 나젠드라씨는 구타당한 자국민 취업연수생 노동자를 면담하러 가던중 10월 20일경 수색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 되었다. 그리고 11월 4일 밤 7시 대한항공편으로 네팔로 강제출국 당하였다.

나젠드라씨는 지난 92년 2월경 한국에 입국하여 2년6개월 가량을 경인지역의 공장에서 일해왔다. 그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된 다음날 전화통화를 할때, 보호소내의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적어달라는 피난처의 요청에 따라서 이 편지는 기록되었다. 이 편지의 원문은 88라이트 담배갑 종지와 작은 찌투리 종지들에 네팔어로 적혀 있었다. 첫번째 편지를 받은 후 계속해서 사건에 대한 일시와 장소, 당사자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적 상황을 조사해 달라는 우리들의 요청에 의해서 4차례에 걸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래와 같이 보고 되었다. 편지전달 경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항 때문에 비밀에 붙이기로 한다. 출국하던 날 김포공항에 나갔지만 면회를 할 수가 없었다. 다만 공항직원들의 친절(?)한 배려로 나젠드라씨는 밀폐된 2층 창

문 유리안에서, 피난처 식구들은 창밖 1층 주차장에 서서 무어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손짓 발짓을 하며 작별을 고했을 수 밖에 없었다. 이 편지는 가능한 한 원문대로 번역하였고, '보호소'라고 번역한 용어는 원문에는 모두 '감옥'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밝힌다.]

[첫번째 편지 - 94년 10월 21일, 휘경동 외국인 보호소]

친애하는 미스터 김, 미스 김, 미스 조, 미스터 리, 그리고 미스터 반자데 에게!

여권과 비행기표가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주일 안에 출국을 시킵니다. 이곳은 생활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동출입국관리소에서 주는 것보다는 조금 좋은 환경인것 같습니다. 목동출입국관리소에서는 담배를 사 달라고 돈을 주었는데, 돈도 돌려주지 않고, 담배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시키는대로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키는 것에 복종하지 않으면, 맞거나 벌을 받게 됩니다. 한번은 8명중의 1명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앞에서 웃지 말라고 했는데, 웃었다고 몸을 묶인 후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그가 사무실안에서 맞았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고, 다만 밖에서 비명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3번씩 식사를 주고, 3번씩 전화하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은 일회에 1분씩입니다. 그리고 매일 의사가 몸을 체크한다고 하루 한 차례씩 순회를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모두 13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네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열심히 우리방의 문을 잠글때, 매우 행복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월급이 있는데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491-1857이고 '싱'이라는 사람을 찾으면 통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임금체불 상황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벌금이라고 빼앗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돌아가기 전에 피난처에서 빨리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액수는 '사르즈'가 51만원 이고, 저도 51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젠드라로부터...

추신: 우리는 9월 12일과 14일에 잡혀서 수감되었고, 나젠드라를 통해서 피난처를 알게된 여섯명의 네팔인 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온지 1개월 1주가 되었는데, 밖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월급도 못받고, 비행기표도 없어서 계속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월급은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며.... 이름과 체불임금 내역, 공장주소를 알려드립니다. Surbir sthapit - 3개월분, Purushotam Shrestha - 3개월분, Mohamed Mahmood - 2개월 15일분, Bijendra Pradhan - 2개월 15일분, Dwarika Manandhar - 3개월분, Aejaz Waris Rangraej - 2개월 15일분 입니다. 공장주소 - 삼일존(전)자, 일산금단 전화번호 0344)914-6218, 사장이름 - 호상무(회사직책인 상무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됨), 집전화 번호 - 032)674-4063 감사합니다. 네팔인들

[두번째 편지 - 94년 10월 30일, 휘경동 외국인 보호소]

친애하는 미스터 김과 피난처의 가족들에게!

어제 전화를 통해서 나는 미스터 김이 이곳의 상황을 궁금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상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려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국 노동자보다 차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전화,면회 등 모든 것에서 다른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우리는 하루 3회 식사를 하고 식사 후 5분동안 쉬거나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나 안내원들의 명령들을 거부하게 되면 그들은 심하게 화를 내고 심지어는 나무나 플라스틱 봉으로 우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10.25일에는 4명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심하게 맞았습니다. 허락없이 방(보호실-원문에는 방으로 표기되어 있음)과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라이터나 다른 물건들을 가져오면 직원들은 우리를 때립니다. 청소를 해주는 사람에게는 외부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렇지 않는 사람은 전화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현재 이 보호소(원문에는 감옥으로 표기함)에는 모두 133명의 외국인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116명, 여자는 17명입니다. 나는 12일째를 여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잡혀야 했는지 등 체포명령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경찰에 의해서 잡혀야 합니까? 나는 그들의 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그들은 어떤 제한도 없이 법을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자주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쌍노무 세키”, “케세키”, “썸팔놈아”(원문발음 대로 표기) 등등..

감옥에 들어갈 때 부터 두통이 시작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몇 가지 약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두통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약 13명의 사람들이 한방에 함께 갇혀서 생활 합니다.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어서 찌린내나는 화장실 냄새가 우리들의 방안에 가득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출입국 직원들에게 우리들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도 한답니다(그동안 밀린 월급이나, 갑자기 잡혀서 일하고 있던 회사에서 지불받지 못한 임금). 그러나 그들은 그것은 “우리 임무가 아니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비행기표나 다른것들을 사라고 명령하고,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이번 12월까지 모두 돌아야 한다고 말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비행기표와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금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건강에 대해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이 없는 약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날 한 나이지리아 사람은 의사 처방이 없는 약을 먹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여 직원에게 맞았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동물 같습니다. 그들은 감옥안에 우리를 넣고 열쇠를 가져갈 때 매우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네팔에 돌아가서 대사관에 한국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한국사람들이 좋게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한국 친구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함을 전합니다.

[세번째 편지 - 94년 11월 3일, 휘경동 외국인 보호소]

친애하는 미스터 김!

지금 나는 당신에게 몇가지 다른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비행기표와 여권이 없으면 어느누구도 이곳에서 출국할 수 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심지어 두달 동안 갇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와 여권을 찾기전에는 외부와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지만(대부분의 기업주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정책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여권과 항공권을 압류를 하고 있음), 찾게되면 외부와는 접촉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이곳에는 10명의 연수생들이 회사를 이탈했다가 사장에게 붙잡혀서 내일 출국 당할 예정입니다. 10월 22일 오후3시경 박창배라는 중국사람은 무지무지 하게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플라스틱봉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유는 나이트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삐삐번호는 01-832-7799-3962입니다.이 삐삐는 국제삐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은 베이징(북경)입니다. 더 더럽게 맞은 사람은 나이지리아에서 온 미스터 Hyton Ewuffu (address:473 textile mill road 1 dymoda Benin City, TEL:001-234-52-24756, 여권번호:76114)씨 인데, 그는 10월 25일 오후5시경 관리직원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외에도 3명의 다른 나이지리아 사람이 구타를 당했는데, 한 사람은 먼저 편지에서 밝힌대로 의사처방 없는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고, 또다른 두명은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은 John kennesy씨와 O.C Ojinnaka씨 입니다.

보호소의 부소장인(네팔어로는 두번째로 높은 오피서로 기록되어 있음) 문계장(문계장은 발음이 불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 발음은 ‘퐁 계장’으로 기록되어 있음)은 매우 나쁘고 위험한 사람입니다.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또다른 직원들에게 일대일로 땅바닥에 엎어놓고 구둑발로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문계장은 가장 많이 구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계장이라는 사람은 45세정도 가량이고 배가 조금 나온 사람 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기를 원하며....

[네번째 편지 - 94년 11월 4일,김포공항 외국인 보호실에서]

맞은 사람중에서 또다른 한 파키스탄 사람이 또다시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의 일

굴은 지금도 부어 있고, 손에는 아직도 마른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Idirish 입니다. 갇혀있는 보호실은 6호실 입니다. 그 사람이 맞은 이유는 물이 가득찬 물통을 식당까지 옮기라고 시켰을때, 무겁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도 아니다 라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드리스씨는 자기호실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보호소 직원들이 끌어내어 사무실로 끌고가서 구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40일 동안 이곳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아직 까지도 못나가는 이유는 비행기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소장은 너무나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를 볼때도 동물을 보듯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잘라서 고기로 썰어 먹어도 만족할 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그리고 또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사람을 만나면, 밤이 아니고, 대낮에 길거리에서 기름을 몸에 부어서 불질러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한국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를 했습니다.

## - 피난처 활동정리 [94 주요활동 및 95년 계획]

### [94주요활동]

- 1.외국인산재노동자 산재보상 적용운동(1-2월. 종결)
2. 추방당한 외국인산재노동자 보상금 찾아주기 모임(4월시작. 진행중)
3.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및 문제점을 사회문제화(10월시작. 진행중)
- 4.외국인보호소 인권실태 폭로( 조사중, 11월말경 예정)

### [95년 계획]

1.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사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담사례집과 자료집들이 출판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작업에 활동방향을 두고,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1세대의 경험을 정리할 예정이다.
2. 추방당한 국외산재자 문제와 관련 정부의 보상이 요식행위(예:일이백명 수준의 보상)에 그칠 경우 - # 10개국 동시다발 항의집회, # 10개국 산재자가 한장소 집결 국제기자회견 추진,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위에서의 집회.농성 추진 등 3단계에 걸친 국제활동을 상반기 핵심사업으로 예정
- 3.외국인노동자 가이드북, 외국인노동자 실무자 가이드 북 발간
3.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부정책 및 구조변화와 병행하여, 외국인노동자 개인의 삶과 인격의 변화, 보다 개인적인 만남을 가능케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해
4.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고 활성화 하는 해, 따라서 한국인 노동조합과 연결 모색
5.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국내, 국제운동 방법 훈련(피시통신, 인터넷 이용법 훈련)
6. 국제기구(국제노동기구, 기타 국제인권단체)에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운동을 정례화.활성화 하는 해.
7. 3세계공동체에 대한 실험을 심도있게 출발하는 해가 될 것이다.
- 8.공동체 내부 예배 정례화와 고난받는 국외 소수민족(동티모르,쿠르드족 등) 지원체계 구축
- 9.공동체 경제자립방안을 위해 시범사업 실험을 시작하는 해

## - 광 고

1. 피난처 소식지 및 기타 안내물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귀향모임' 회원가입 후 회비를 납부한 분들 중에서 다음분들은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김동순, 남현정, 남궁혜경, 버딤 살, 성인심, 신선교, 박미숙, 박경호, 박정화, 오송희, 오형주, 양기진, 이수호, 이인교, 이영녕, 이윤주, 이준대, 연규자, 정효정, 용은미, 최진우, 염재상, 장우진, 옥수동]

2. '귀향모임'에서 주최할 [3세계찾기 배낭여행]에 참가하실 분들은 12월10일까지 피난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출발은 94년 1월초로 예정하고 있으며, 여행기간은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기간동안 체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기본비용은 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장기체류의 경우 현지체제 비용이 적기 때문에 단기체류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문루트는 서울 - 태국 - 네팔 - 인도 - 방글라데시 - 인도 - 태국 - 서울 예정입니다. 방문내용은 한국에서 산재당한 후 보상없이 강제출국당한 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하는 것이 기본 프로그램 입니다. 그리고 체류기간에 따라서 참가자가 원하는 여행(관광, 자원봉사, 연구, 취재, 단순체류 등)이 가능토록 조치할 것입니다. 참가자격은 '귀향모임'에 가입한 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혹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희망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확정되는 참가자 모임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념할 사항은 참가자가 10명이내일 경우 이 프로그램은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적인 여행상담(항공권 구입, 여행루트, 여권, 비자, 현지생활 등) 과 현지에서의 숙박 및 안내(현지인 연결) 등의 도움만이 제공됩니다.

### 3. 3세계공동체를 지원해줄 분들을 찾습니다.

1차 국외활동을 통해서 한국에서 산재당한 후 귀국해서 살아가는 분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자로서 사회로 부터 받게되는 '낙인'과 더불어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도 하루 세끼를 채우기가 힘든 3세계나라들에서 장애를 가지고 생계를 꾸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장애가 가져온 정신적인 충격까지 겹쳐서 그 비참의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피난처'에서는 이들에게 생계대책과 아울러 미래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공동체를 각국(현재는 네팔과 방글라데시)에 꾸릴 계획을 제안 하였습니다. 산재당한 당사자들 역시 이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큰 입장이고 이미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할 기업가나, 개인, 사회사업가, 선교단체, 기술자, 운동단체, 학생단체 등 이들이 독립적인 재빨공동체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할 분들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4. '귀향모임'의 국외활동이 재정문제로, 사실상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 일단은 정부의 기본정책은 변화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원칙적으로 국외14개국에서 산재자 접수작업을 금년 12월 까지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내의 실무자들의 태도로 보건데 얼마나 적극적일지는 상당히 미지수 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외에서의 감시활동과 자체홍보 및 모집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10월 중순경 [중국],[필리핀],[서남아]지역에서 2차 국외활동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상태로라면 언제 2차 국외활동이 가능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이 타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우리나라에서 산재당한 후 본국으로 추방당하여 생활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한겨레 21] 8월 25일자 제23호에 자세히 보도 되었습니다. '귀향모임'활동과 우리의 '양심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있는 구독을 요청합니다.

## 6. 자원봉사자 모집

겨울방학 동안 피난처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내용은 전화받기, 상담진행, 피난처 관리 등 입니다. 영어회화를 못하시는 분도 가능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기도

기도는 말, 의미, 목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채우고 그 본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예:정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먹는 것, 동작하는 것, 이런것들 자체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역시 기도입니다.

### 1.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합시다.

# 외국인노동자 한 사람이 한달간 제조업체에서 일할 경우 우리경제에 기여하는 액수가 390만원이라고 93년 상공자원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통계로만 따져도 외국인노동자를 최소로 잡아 10만명으로 보아도 이들은 한달에 5억불 이상의 이윤을 한국경제에 벌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런 권리도, 보호도 해주지 않으면서(심지어 임금조차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국경제의 혜택이 과연 나의 삶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각자 자신을 되돌아 봅시다.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 된다면, 밥한끼를 굶고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 문제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없이는 이 나라의 교회도,노동조합도, 시민단체도, 국가도,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진실'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 한국인노동자가 한시간 일해서 10개의 제품을 만들때, 외국인노동자도 역시 10개의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기업주의 이윤은 외국인노동자가 일을 할때도 한국인노동자가 일할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업주(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주고, 산재를 당해도 보상액을 적게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에서 그들이 받는 월급에 비하면 한국에서 받는 월급은 많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것 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윤(실제로는 한국사람을 채용했을때보다 더 많이 본다. 한국사람보다 낮은 임금과 적은 산재보상. 열악한 시설투자비 등)은 한국식으로 계산하고 지불할것은 그나라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계산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현재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디오피아.소말리아.수단 사람을 수백만명 데려와서 노임없이 밥먹이고 잠만재워주며 일을 시키는 것도 좋은 선행이다" 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와같은 우리사회의 부정직성이 거듭나도록 기도합시다.

2.새로 유입한 '외국인취업연수생'들이, 기업과 정부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때문에 대부분 감금상태에서 노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개선되도록 기도 합시다.

3.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기도 합시다.

4.산재당한 후 보상없이 본국으로 추방당한 외국인노동자를 찾는 작업에서 정부가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기도합시다.

5. 이 백성이 외국인노동자를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노동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가슴.눈물.피.고향.어머니를 가진 "노동자"로 "형제"로 맞이하도록 기도합시다.

## † 바닥교회 공동체란 ?

저희 바닥교회 공동체는 복음서의 정신에 따라서,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인류역사의 현장에서 재해석 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모임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삶이, 교회의 제단에서 제의적으로 해석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또한 공장에서, 거리에서, 3세계의 밀랍에서, 전쟁터에서, 부패한 정치가 있는 사회속에서 해석되고 실천되는 복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죄를 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두세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인 곳은, 비록 누추한 골목.공장 안.감옥 그 어느 곳 이건 그곳이 교회요, 이들의 삶이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제의와 예언적 삶, 영성과 세속성, 초월성과 역사성을 하나로 일치시킨 사건임을 고백하고, 이 일치를 고무하는 신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계에 불러온 화해의 덕목을 추구합니다. 부자와 빈자,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 남자와 여자, 이념과 이념으로 대립하는 세계에서 인간들의 이해관계로 비롯된 증오의 정당성을 거부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자기버림의 사랑만이 화해를 이룩하는 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공동체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임입니다. 인간의 죄의 가장 현상적인 모습은 욕심이며, 이 욕심에서의 해방, 자기버림을 강조하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생활의 덕목으로 검소, 절제, 절약을 지향합니다.

우리공동체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기독교단체와 건강한 연대와 협조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파나 주의에도 소속하지 아니하며, 무소속이라는 주의도 만들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또한 우리는 열린 기독교를 추구하는 공동체 입니다. 신도의 외적인 생활을 따라 신앙을 단죄하고 심판하지 않으며, 고의적인 거짓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배척하지 않는 한 모든성격의 기독교자(성프랜시스와 본회퍼)가 함께 공존하며 독려하는 생활을 추구합니다.

바닥교회 공동체는 농촌공동체(평화의 의지), 도시공동체(꽃들에게 희망을), 3세계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농촌공동체는 세속 사회속에서 수난 당하는 사람들이 자연속에서 영적이고 육체적인 휴식을 누리는 피난처입니다. 도시공동체는 도시가 반영하는 사회악과 싸우는 전투적인 공동체 입니다. 3세계공동체는 가난과 부, 인간의 죄, 전쟁, 환경파괴 등 삶의 윤리가 한 국가와 단체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우리의 죄는 전인류적 차원에서 고백되고 속죄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사람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평등한 누림에 대해 명령한 하나님의 의지의 실현을 지향합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는 90년 6월 구로공단에서 공부방사업을 첫 시작으로 도시공동체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공동체 두번째 사업으로, 92년 11월 부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은 3세계공동체 사업의 실험을 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 하여 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공동체를 실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함께 경험하고 나눔을 가지기를 원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